죽음에서 피어난 눈

✔이 글은 한겨레결체로 쓴 글입니다.

겨울-이야기의 시작

눈을 떠보니 여긴 어느 집 안인 것 같다. 어제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다.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도, 그것의 더 이전도 말이다. 나는 아무래도 과거를 다 잊어버린 듯하다. 여긴 대체 어디지. 내가 지금껏 살아온 곳인가. 아니라면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누가 나를 여기에 데려 온 것이지. 내가 이곳에 살았다는 기억이 없으니 일단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본다. 주위를 둘러본다. 어둡다. 저녁이다. 하지만 여긴 내 기억에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장소보다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다.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하지만 몸이 무척이나 느리게 움직인다. 아, 내가 사람이긴 한 걸까. 설마, 귀신이 된 건 아니겠지.

"아앗!"

문을 열려다가 한 소년과 부딪혔다. 그러나 그 소년은 내가 아는 소년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기억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전혀 아프지 않다. 전혀 아프지 않은데, 왜 속에서 슬픈 감정이 솟구치는 것이지. 아, 그건 그렇고 이 소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걸 깜빡했군.

"미안하다."

"으악! 귀신이 말을 한다니! 저주받은 귀신아, 썩 꺼져라!"

소년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굵은 목소리는 넘어진 소년 한참 뒤에서 있는 어느 여자였다. 그 말은 곧 내가 귀신이란 말이군. 설마 했던 일인데, 뭐 대수롭지도 않다. 어쨌든 그 말은 흘려듣고 소년을 일단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아무래도 여긴 내가 아는 동네가 아닌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면 귀신이라고 하는 영혼들은 생전의 기억들을 잃는 자인지도 모르겠다. 생전의 모든 기억들이라면 말하는 법도 잊었겠지. 하지만 나는 확실히 말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도 할 수 있다.

"이 사람, 아니, 귀신은 나쁘지 않아요."
"시끄러워! 그 귀신은 분명히 우리 마을을 파멸로 몰 것이다! 네가 이 귀신을 데려 왔느냐? 이건 물건도 아니라서 버릴 수도 없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였으니 저는 적어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이 마을의 촌장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천성이 선해서 그런 것이지, 귀신이라는 것들은 원한과 슬픔으로 뒤범벅된 감정을 소유한 것들. 그런 자들이 저주를 품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하지. 귀신이 이 마을에 등장한 이상, 이 마을에는 분명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걸 어떻게 단정할 수 있죠."
"자세한 이유는 언젠가 설명할 날이 오겠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험을 거쳐야지."
"무슨 시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르겠습니다."
촌장은 술렁이는 사람들 쪽으로 뒤돌아보더니 구자법(九字法)인 듯 한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검은 복장의 사내 둘이 촌장 앞으로 다가왔다. 둘 다 검은 복장에 비슷한 키, 거기에 비슷한 눈매. 코와 입은 검은 천으로 가려서 볼 수 없었지만 눈빛을 보니 분명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촌장 앞에 선 둘은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이 둘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가는 자객이다."
"예상은 했었지만 역시나 닌자마을이군요."
"이 둘은 이름이 없다. 나도 물론이고. 하지만 자네는 닌자출신이 아닌 모양이니 이 둘을 어떻게 불러야 될는지 모르겠지. 내 왼쪽 닌자를 야마다라 부르고, 내 오른쪽 닌자를 우치다라 부르게."
"즉석에서 작명입니까. 그것보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이 마을에 군대가 들이닥칠 것이란 정보를 입수했네. 그러니까 자네 셋이서 그 군대를 격퇴시키게. 그게 시험일세."
"알겠습니다."
군대의 수가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통솔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이 마을에 오래 머물 것도 아니면서 시험을 치르겠다고 해 버렸다. 어쨌든 촌장은 그렇게 웅성거리던 마을사람들을 해산시켰고, 내 앞에 선 자객들은 말없이 서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귀신이라 그런지 귀가 밝아져서 촌장의 혼잣

말을 들어버렸다.

"예전 귀신도 그렇게 내 동료의 목숨을 빼앗았지. 그 귀신 녀석도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저 녀석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을 한 번 더 아프게 할 녀석이야……."

나는 그걸 들었지만 일부러 못들은 체 하였다. 내 앞에 선 둘은 지나치게 과묵해 보였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이름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예전에도 귀신을 본 적이 있었어……."

"네?"

"아니, 잘 부탁한다. 나는 야마다. 본명은 없다. 촌장의 옛 동료도 야마다였지……. 뭐, 그건 네가 알아도 소용없는 옛날이야기고, 네가 시험을 받게 되었으니, 일단 시험을 통과해야 너도 네 원한을 풀 수 있겠지."

"나도 내가 무슨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차차 알게 되겠지."

"군대는 어떻게 여길 알게 되었고, 왜 여길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군대가 진을 친 곳은 안다. 가자. 준비는 내가 다 해놨으니. 어차피 촌장은 우리 둘을 시켜서 군대를 퇴각시키게 할 참이었는데, 네가 군대에게 겁을 주면 좀 더 쉽게 퇴각시킬 수 있겠지."

"결국 난 귀신이 되어서 이용되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라."

"농담일 뿐. 닌자마을에서 귀신은 농담도 못하나?"

어쨌든 그렇게 우리 셋은 초면에 동료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만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 아니, 그냥 이렇게 잠깐 스치다가 내 원한만 갚으면 스러질 인연이겠지. 그래도 야마다는 한 번 입을 열면 말을 꽤 쏟아내는 편이지만, 우치다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야마다가 이동하는 곳으로 갔다. 숲이 우거진 곳으로 갔다. 밤중인데도 달빛을 보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갔다. 계속 기억을 떠올리려 애를 써본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다. 내가 그곳에서 깨어나기 전에 어디서 무얼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던 중에 적의 진영에 도착하였다. 숫자는 얼핏 봐선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서인지 경계는 삼엄한 편이었다.

"넌 여기서 기다려."
"그러지 뭐."
"나중에 여기에 돌아오겠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갈라져서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귀신이라도 온 세상을 다 볼 수는 없군."
그렇게 중얼거리긴 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서 적진으로 나도 갔다. 닌자들은 나를 볼 수 있지만, 병사들은 내가 적진 한 복판으로 가도 전혀 못 알아차렸다. 결코 졸고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나를 보더라도 나에게 그리 불리할 게 없다. 미신을 잘 믿는 이녀석들은 귀신 이야기에 두려움을 흔히 떨지.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군대의 숫자는 대규모가 아니었다. 적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운이 흐른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가보니 다른 장막보다 약간 더 큰 장막이 있는 곳이었다. 도대체 흐르는 기운이 무엇인지, 혹시 음양사라도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들어가 보았다.
"무사님, 어째서 이 작은 마을을 없애려는 겁니까?"
한 여검사가 무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무사가 대답하려는 찰나에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런데 그 얼굴 생김새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그리고 내 앞에는 눈밭이 펼쳐져 있었다. 사방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눈밭에는 풀조차 나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두 사나이가 대결을 한다.
'저기 있는 검은 무사복은 나인가. 상대방은 막사 안의 무사이군.'
자신의 모습을 귀신이 되고 나서 처음 보았다. 하지만 내 생전 모습을 단번에 알아차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자신을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하하, 다츠지, 네 목숨을 끊을 날이 왔구나. 기분이 어떠냐?"
"문답무용."
그런데 두 무사가 칼을 맞대기도 전에 생전의 나는 움찔하다가 상대가 칼을 매섭게 내리치자 겨우 막아낸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일 뿐, 곧 상대방이 품에서 꺼낸 단도로 자신의 옛날 몸을 찌른다.
'내 이름이 다츠지인가? 그나저나 나는 왜 움찔하였을까.'
뒤를 보니 검은 복장의 닌자가 독침을 쏘는 대롱을 들고 있었다.
"일대일의 정당한 대결이 아니라니! 이건 무사도 정신에 어긋나는 것

이 아닌가!”

그 말을 생전의 다츠지가 외치자 눈앞의 상황은 사라지고 천막 안의 두 놀란 인간이 보였다. 아무래도 나도 그 말을 외치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무척 놀란 듯한 모습이었다. 여검사가 뭐라 말을 하려는 찰나, 밖에서 병졸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다.

“폭설이다!”

“귀신의 분노다!”

“닌자의 마을을 수호하는 귀신이 분노했다!”

나는 얼른 천막을 빠져나왔다. 두 닌자가 날씨를 변화시킬 재주가 있진 않을 텐데. 천막 안에 들어오기 전엔 불지 않았던 바람이 불던 게 눈에 보였다. 하지만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감정이 있지만 감각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어쨌든 여전히 병사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왔다. 하지만 귀는 밝아서인지 남자 무사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별 수 없지. 모두 철수하라! 퇴각이다!”

운명은 예정대로

마을로 돌아오는 내내 야마다는 나에게 불평을 하였다. 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 날씨가 변해서 우리도 물러났는데, 네가 없어서 무척 불안했다, 진짜 촌장 말대로 우리 마을에 저주가 퍼부어 진 것은 아니냐 등등……. 하지만 우치다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우치다, 너는 정말 말이 없구나.”

“…….”

“내 생각엔 우치다가 닌자의 표본인 것 같은데.”

나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날씨가 미쳐버려서 그런지 이래저래 무사들과 병사들은 퇴각하였다. 하지만 병졸들이 외치던 귀신의 분노란 단어는 잊히질 않았다. 아무래도 내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날씨가 변한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귀신이 되어서 닌자들과 함께 길을 걷는 것도 더더욱 이상할 노릇이다. 내가 생각하는 귀신은 결코 남과 같이 다니지 않는다. 혼자서 다니고,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생전의 나를 본 현재의 나다. 대체 나

는 무엇 때문에 그 무사와 결투를 벌였으며, 무사도란 무엇인지 제대로 떠올리지도 못하면서 무사도를 어겼다는 분노가 생기다니.

마을에 돌아오면 무언가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 원한을 갚을 수 없다. 일단 마을에 돌아와서 촌장에게 적들을 퇴각시켰노라 말했다. 그러자 촌장은 나만 따라오라고 하더니 자신이 거처하던 방으로 갔다. 그는 자리에 앉더니 나에게도 자리에 앉길 권했다.

"이 마을은 다른 닌자마을과는 조금 다르지."

"군사들이 이 마을을 치러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군요."

"나도 왜인지는 모른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 마을엔 예전에 복수를 할 마음을 품은 귀신이 우리 마을을 수호해 준 적이 있었지.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그 귀신은 내 동료가 죽게끔 만들었다. 하지만 그 귀신은 복수도 못한 채로 사라졌지. 그 후로 우리 마을은 귀신이 보호해 준다는 소문이 은밀히 퍼졌다. 그리고 그 귀신이 복수하려던 대상이 아마도 군사를 이끌고 온 모양이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다. 우리 마을은 보통 특별한 마을이 아니지. 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진 계속 동료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지만, 막상 동료가 사라지니 닌자의 일을 하기도 힘들겠다 싶어서 농사를 짓고 다른 닌자를 교육시키고 임무를 배정하는 촌장 일이나 하고 있지. 하지만 아직도 닌자의 솜씨는 남아있어."

그러더니 촌장 앞에 놓인 상자의 뚜껑을 열고서 붓으로 휘휘 젓더니 내 가면에다 바르면서 이야기를 계속 했다.

"사실 구자법은 사람 부를 때 쓰는 기술이 아닌데, 닌자의 본업을 멀리하다 보니 자꾸만 잊히기에 하나하나의 손동작에 우리 마을의 닌자들을 부르는 신호로 쓰이게 되었지. 그건 그렇고, 자네에게 바르는 이 독은 사람이 만졌을 때 피부가 보라색이 되지. 잠깐 만지면 목숨은 건지지만, 오래 만지게 되면 독이 심장에 퍼져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되지. 나도 이걸 맨손으로는 만질 수 없어. 그래서 붓으로 자네 가면에 바르는 거지. 자네는 귀신이니 죽을 일은 없겠군."

"뭐로 만든 겁니까."

"나도 몰라."

"네?"

"그 귀신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상자인데, 제일 처음 만진 닌자는 죽어버렸어. 뚜껑을 열고 독을 만진 자는 죽어버렸어."

"그게 동료입니까?"
"아니.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독이라 생각되기에 내가 고이 보관중이지. 이 독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에 씻겨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안전하긴 하지."
"귀신의 분노를 아십니까?"
"……. 몰라, 뭐야, 그거. 무서운 기술 이름이네."
"누가 절 죽였는지 알았습니다. 물론 죽을 당시의 일만 떠올랐지만, 정당하지 못한 승부로 저를 죽인 게 틀림없으니, 저는 꼭 복수를 해야겠습니다. 무사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말입니다."
"자네는 생전에 무사였군."
"그렇겠죠."
"독은 골고루 다 발랐다. 붓으로 가면을 간질이는데 안 느껴지는가?"
"전혀요. 바람이 몹시 불어칠 때에도 공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나무와 여러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바람이 세차게 분다고 생각할 뿐이죠."
"진짜 귀신이구먼."
"진짜 귀신입니다."
"이제 그만 나가봐."
촌장의 집에서 나오니, 아직 밤인 모양이었다. 어디로 갈까 약간 고민할 틈도 없이 우치다가 나에게 와서 알려줬다.
"귀신은 낮이 되기 전에 사람의 인적이 드문 숲에서 잠을 잔다."
그리고는 제 갈길 가버렸다.
'나보다 저 녀석이 귀신 하는 게 더 어울리겠는데.'
어쨌든 저 녀석이 나에게 거짓정보를 알릴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귀신이 사람 자는 곳에서 자는 것 보다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옳은 것처럼 생각된다. 지금이 한밤중인지 새벽인지 모르니 얼른 숲 속에 가 있는 게 좋을 듯 했다. 이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검을 연마해야 한다. 검술을 얼른 익혀서 복수를 해야 한다. 비겁한 승부 따윈 인정할 수 없다. 복수는 빠를수록 좋은 법.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에게는 검이 없다. 검을 가져다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결국 야마다를 부를 때 쓰던 손짓을 허공에다 했다.
'설마 오겠냐. 이 어두운 밤중에.'

"불렀는가."
"?!"
"왜 불렀어."
"너는 닌자라서 이해를 해 줄지 모르겠는데, 장검이 필요해."
"사람을 죽이려고……?"
"닌자도 사람을 독과 비술로만 죽이진 않는가 보군. 나와 대결한 자는 비겁한 녀석이었어. 닌자들 내 뒤에서 독침을 쏘게 하고는 내가 움찔한 틈을 타서 나를 얼른 죽여 버렸지. 무사도에 어긋나는 짓이야."
"무사들은 꼭 대결이 일대일이어야 하는 건가? 이기면 그만이지."
"나도 기억이 다 되돌아온 상태가 아니지만, 내가 졌다는 이유 정도로는 원한이 맺혀서 귀신이 될 리가 없지. 하지만 복수를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기억은 더 많이 되돌아오겠지. 그리고 복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겠지. 촌장은 내 복수를 위해서 너희 둘이 꼭 나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임무라고."
"윽, 촌장, 멀지 않은 과거를 잊지 못했군."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장검을 구해주면 되겠군. 그 때까진 내가 쓰던 직도를 쓰도록 해."
'아무리 닌자라도 거짓말엔 속는구나. 하지만 그건 내 말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인 듯하군. 게다가 촌장이 내린 임무라고 덥석 받아버리다니. 이거 왠지 미안해지는데. 내가 촌장 말대로 진짜 둘을 죽음에 몰아넣는 건 아닌가 모르겠군.'
야마다는 등 뒤에 차고 있던 직도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그걸 받아들고는 숲으로 갔다. 그리고 직도를 조용히 감상했다. 곧은 날, 대충 제련된 검. 오직 방어와 임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 무사의 검과 제대로 부딪히는 순간이면 산산이 깨질 듯한 최악의 담금질 상태.
'내가 검만 보고도 그 상태를 알게 되다니. 난 역시 살아 있을 적엔 무사였던 모양이군.'
숲에서 계속 검을 휘둘렀으나 검술이나 검법 같은 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대나무를 베려고 했으나 직도로 베어질 리가 없었다. 결국 허공만을 벨 뿐이었다. 그렇게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연습을 하리라 생각했지만, 새벽이 밝으니 잠이 쏟아졌다.
'뭐야, 귀신도 잠을 자는 존재인가?!'

결국 그렇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어느새 저녁 무렵. 직도는 자기 옆에 놓여 있었다. 정말 투박하다 못해 검 구실을 못하는 칼이었다. 둔기라 해도 믿을 정도의 날이다. 어쨌든 스스로가 생각해도 여기 대나무 밭에서 직도를 휘두른다고 갑자기 검술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 자신이 배웠던 기술을 잊은 상태이므로 여기서 검술을 새로 창조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므로 무리다. 결국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닌자마을에 돌아오는 게 상책이었다. 그렇게 마을로 다시 돌아왔다. 아무래도 이 마을과 한 달을 같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슬픈 예감이 들었다. 다른 닌자 마을은 잘 모른다. 하지만 이 닌자마을은 이상한 곳이다. 정말이지, 내 상식에 맞는 닌자들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귀신과 닌자와의 관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관계다. 야마다와 우치다를 만나는 것 보다 이름모를 촌장에게 가서 내 계획을 말하는 게 좋을 듯싶다.

"복수를 할 겁니다."

"안다."

"그 자가 사는 곳에 닌자들을 투입시켜서 다른 자들은 꼼짝 못하게 발목을 묶어버리고, 저는 그를 유인해서 일대일로 정당하게 맞붙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기면 원한을 갚은 것이고, 제가 진다면 그의 실력이 좋은 것이었으니 제로서도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질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술수를 썼다면 자신의 실력은 좋은 편이 아니겠지요."

"과연 그럴까. 실력이 좋다고 수를 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대결에 유리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못 쓰겠는가. 패배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유리한 고지에 서는 이득을 생각해서 그런 수를 쓸는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제가 진다 해서 야마다와 우치다 둘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 무사의 수하들의 발목을 붙잡는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아니, 발목을 붙잡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지. 그 무사가 했던 대로, 자네도 야마다와 우치다를 근처에 배치해 놓고 독침과 표창을 던지도록 하게. 아직 악천후에서 독침 쏘는 걸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런 악천후는 아직 겪은 적이 없으니 자네는 분명히 자네가 당한 대로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이네. 그 이상일지도 모르고."

"당한 때보다 갚을 때가 더 크군요."

"어쨌든……한 가지는 확실하군. 자네 때문에 야마다와 우치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 말이지."

"네?"

"자네는 무사도 운운하면서 복수를 하려 했지만, 정작 내 의견은 곧이곧대로 들어버리니, 자네도 보통 영악한 게 아니군. 이게 다 자네 저주와 원한 때문이야.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은 뒤로 하고, 자네 복수가 제대로 성공하면 두 닌자도 죽을 일은 없을 테니 자네에게 줄 것이 있다네."

그러더니 별다른 무늬 없는 검집에 꽂힌 검을 주었다. 검을 꺼내 보니 무사가 쓰는 검이었다. 제대로 된 검이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면서도 이처럼 아름다운 무기는 없다. 한참을 그렇게 감상하는 데 촌장이 불쑥 말했다.

"그 검 말이야. 그 검을 지닌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사라지지만 복수는 반드시 하게 되지. 이 검은 동료가 썼었는데, 이 마을에서 제일가는 닌자였지만 개인의 원한을 잊지 못해서 결국 검을 휘두르다 죽었지. 근데 시신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지. 그 검은 복수를 위해서 날씨를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은 없다네. 바람을 일으키거나 구름을 불러서 미친 눈발을 부르는 것 등의 날씨변화는 오직 자네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지만, 그래도 이 검으로 인해서 복수는 완수해 버리지."

"그렇군요."

"너는 두 닌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지만, 그건 자네 원한에 대한 집념 때문이니 나는 더는 말릴 수 없다네. 그래서…나는 야마다를 상인으로 변장시키고, 우치다는 스님으로 변장시켜서 성에다 잠복시켰다. 야마다는 평소엔 과묵한 것처럼 보여도 한 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을 꽤 하는 편이지. 그래서 상인역을 맡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역이지. 마침 마을에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했으니, 그건 알아서 해오겠지. 우치다는 과묵한데다가 말에 무게가 있어서 아무도 그의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지."

"여러모로 신세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뭐로 갚을지."

"복수를 완수해."

두 무사

촌장의 집을 빠져나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촌장이 나를 돕는다. 무슨

이유인지는 내가 알 필요가 없다. 아니, 이유라면 두 닌자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스스로의 일일 터. 그렇게 마을을 서성이다가 두 무사가 이리로 오는 게 보였다. 귀신이 되면 귀는 밝아지지만 눈은 생전의 그대로인 모양이다.

두 명의 무사. 그들을 보니, 또다시 눈앞이 암흑으로 변한다. 그러다가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건 분명히 어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적장을 보고서 말이다. 이러다가는 복수를 할 때까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것만 같다. 어찌되었건 이건 나의 기억을 찾을 수 있는 단서임에는 틀림없다. 이번에도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자. 대체 무슨 일인가를.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인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명의 무사가 보인다. 둘은 매우 친한 듯이 보이면서도 실은 친하지 않다. 아니, 친하지 않게 느껴진다. 저 키가 큰 아이는 자신을 무뚝뚝하게 대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에게 마음을 터놓지 않는다. 아무래도……원수는 아니지만 친구도 아닌 듯하다. 그리고 다시 주위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진다. 기억을 건너뛴 것만 같다.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장면은 자신이 청년이 되었을 때다. 이번엔 키가 작은 녀석과 어울린다. 이번에는 좀 친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런 장면도 더는 보지 못하였다.

다시 주위가 밝아진다. 지금 내 앞에 두 무사가 나를 봤고, 한 명만 흠칫 놀란다. 둘의 이름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저 무사 중 한 명이 검을 뽑고는 나를 베려고 했고, 그 옆에 키 작은 무사가 그걸 얼른 말렸다.

"이봐, 진정해! 귀신 모습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일지도 모르잖아."

"그, 그건 그렇지. 겨울이라 농사도 안하고 축제를 하는 마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귀신이 아닌 사람인 척 해야 하는 건가?'

나는 당황했다. 난 사람이 아니다. 저들이 만약 내 가면을 벗어봐라고 하면 나는 벗지 못한다. 억지로 저들이 벗기려고 하면 가면의 독 때문에 사망할지도 모른다. 이 상황에선 못 본 척 못 들은 척 어물쩍 넘어가는 게 좋을 듯하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할 뿐.

"이봐, 가면 좀 벗어봐."

"저, 그게……."
"슌페이, 이 자가 벗고 싶어 하지 않은가 본데. 그냥 놔둬."
"그래? 그럼 내가 벗겨주지."
나는 움찔해서 얼른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급히 변명할 거리를 생각해 냈다.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아서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네요. 하하, 저라고 안 벗고 싶겠습니까. 제가 연극을 해야 하거든요."
"무슨 극?"
"저, 그게,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가부키요."
"그럼 자네 배우?"
"아닙니다. 그냥 주변인이죠."
"그래도 가부키를 하는 거 아닌가."
"저, 그러니까……."
그 때 키 작은 무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슌페이, 그냥 그만두자구. 어차피 이 자를 방해하면 우리도 뭔가를 얻어먹을 수 없잖은가?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고 말이지."
'자꾸 슌페이, 슌페이 하는데 슌페이란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왜 이름을 듣고는 기억이 안 떠오르지.'
슌페이란 키 큰 무사는 다시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가부키를 한가하게 볼 입장이 아니야. 하지만 복수극이라니 흥미가 당기는군. 어차피 그 녀석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다츠지 녀석, 죽지는 않았겠지."
"됐어, 우린 바쁘잖아. 실례했습니다. 슌페이, 가자구."
'잠깐, 다츠지는 나잖아?! 지금 저들을 붙잡지 않으면 과거를 알 기회를 놓친다!'
결심이 서자 나는 그들을 뒤통수에 대고 외쳤다.
"슌페이, 잠깐 멈춰봐."
"뭐야, 초면에 반말이라니! 실례지 않은가!"
"내가 다츠지다."
"네가 다츠지? 어째서 이런 평범한 마을에 있는 건가. 네가 다츠지란 것을 어떻게 믿지?"
"지금 나는 귀신이거든. 그러니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어."
사실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저들이 내가

다츠지란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과거를 영영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다. 저들이 내 생전의 동료이고, 내 원수를 안다면 나는 저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이 어떻게 풀지 난감한 상황에서 키 작은 무사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알겠는가."

"몰라."

"그럼 동명이인이겠군. 초면에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귀신이란 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확신시키지?'

아무래도 내가 먼저 나의 입장을 말해야 될 듯싶었다. 저들이 나를 믿어주기만 해준다면 일은 좀 더 손쉽게 풀릴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저들을 언제 볼 수 있겠는가.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내말은 천천히 잘 들어라. 나는 다츠지다. 나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귀신이고,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야만 해. 그리고 너희들이 생전의 나의 친구들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슌페이라 부르는 사나이는 성격이 융통성이 없지. 그리고 나하고 별로 안 친했어. 그렇다고 동료가 아니진 않지. 동료가 아니라면 옆 사람과 함께 나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슌페이의 옆 사람은 이름을 몰라. 하지만 그는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 그리고 기억이 끊겼어.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야만 해. 이 마을 근처의 어느 성에 있는 어느 무사한테 말이야. 귀신은 그야말로 원한과 저주를 품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 너희들은 생전의 내 친구들이었다면 내가 복수해야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거다. 그러니 내게 알려줘."

그러자 둘은 서로 속닥거렸다.

"사이토, 이 녀석 왠지 다츠지 같지 않아?"

"글쎄, 이 녀석이 다츠지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그를 못 찾더라도 주군의 원수를 갚으면 되니까. 오히려 이 녀석이 귀신이니까 서로의 원수를 갚는데 도와주면 서로 좋잖아. 귀신이라면 분명히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뿌리고 눈을 흩날리고 구름을 모으는 재주가 있을 거야."

'이봐요, 두 사람. 하는 말 지금 다 들리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그래도 저들이 별 의심 없이 내가 귀신이란 것은 믿어주는 것 같았다. 저들이 내 생전의 과거에 등장했으니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틀림없지. 이제 해야 할 일은 저 둘과 함께 복수를 얼른 하면 된다. 언제까지나 귀신으로 있기는 싫

다. 윤회를 한다면 어떻게든 다시 제대로 살아가겠지.
"좋아, 다츠지. 네가 기억을 잃어버린 것은 안 된 일이야. 우리가 모시던 군주는 닌자에게 암살당했다. 그리고 너는 그 원수를 갚겠다며 치아키에게 결투를 신청했지만 그 뒤로 소식이 끊겼지. 우린 네가 그와 실력이 비슷하여 결투를 못 끝내고 어느 마을에 떠돌아다니면서 때를 기다리는 줄 알았지. 네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 함께 하자구."
'이거, 이용하려는 티가 팍팍 나는데. 그래도 저들이 나와 관계된 자였기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저것들은 내 가면 만지게 해서 죽였다.'
우리는 그렇게 또 생전에도 동료였겠지만, 이번에도 어이없는 절차로 동료가 되어 버렸다.

비극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나는 사이토와 슌페이를 촌장에게 대충 설명해 주고, 마을을 잠시 떠났다. 야마다와 우치다, 이 둘이서 잘 활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야 했다. 분명 촌장님의 말씀으로는 우치다가 성 안에 들어가서 스님으로 꾸며서 나에 관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마구 퍼뜨리고, 야마다는 자금을 모아서 성 안의 병사들이 먹을 양식에 설사 증세를 일으키는 약한 독을 넣었을 것이다. 우치다가 퍼뜨린 소문이 뭔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소문대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야마다니까. 나는 그저 둘이 성을 휘젓는 모습이 궁금할 뿐이다.
지금은 낮인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 촌장이 준 삿갓과 옷이 빛을 차단해서 그런 듯싶다. 역시 귀신을 한 번 대해본 자의 솜씨다. 대체 촌장과 만났던 그 귀신은 누굴까. 아무래도 나는 강렬한 빛을 받으면 잠이 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눈도 가늘게 뜨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서서 잠을 잤다. 이 집 저 집 들리면서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니 갑자기 물이 부족하다는 둥, 자식들이 배가 아프다는 둥, 양식에 쥐떼가 습격했다는 둥, 흉흉하기 그지없다고만은 볼 수 없는 장난 수준의 위악이다. 그런 장난스러운 위악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효과는 있었는지 모두가 행동을 조심하였다. 귀신의 장난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나는 둘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라 여겨졌다. 닌자란 정말 이런 때는 유능한 자들이구나. 성에 잠입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

이렇게 일을 벌이니 감사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성 안을 둘러보고 사람들의 분위기도 대충 짐작이 되었다. 그가 거처하는 곳에 가기 전에 우선 대장간에 가 보았다. 대장간에는 농기구와 무기를 팔고 있었다. 나는 이미 장검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단검을 두 자루 샀다. 옷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말이다. 아무래도 대장간 주인은 내가 귀신인지 모르는 모양이다. 삿갓을 쓰고 있다지만 얼굴이 궁금하지도 않을까. 하긴 이 성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대장간과 시장에서 멀어지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가면을 잠시 만졌다. 그리고 그 손으로 단검에다 문질렀다. 가면에 묻은 독은 아직 아무도 만지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남아있다. 게다가 물로 씻겨나가지도 않았기에 분명히 단검에 묻혀도 쓸모가 있을 것이다. 효력은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촌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나는 그 놈이 사는 집이 어딘지 찾아다녔다. 물론 정보도 나름대로 캐가면서 말이다. 물론 직접 말을 걸 수는 없었지만, 귀는 확실히 밝았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어느덧 밤이 되어 버리고, 나는 치아키의 거처를 알아내었다. 내가 지금 검을 들고 있기에 문을 스며들 듯이 지나갈 수 없다. 귀신답지 못한 행동이긴 하지만 손으로 문을 연다. 다행히도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또 문 하나를 열었다. 이번에는 방 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인이 앉아 있고, 그 앞에는 장검이 있다. 그녀를 본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검과 꽃을 떠올렸다. 왜 어째서 그 두 단어가 떠오르는 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저 여자가 나를 못 봤으리라 지레 생각하고 지나가려는 순간, 그녀는 검을 잡고는 격검 자세를 취했다.

"역시, 보였단 말이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지 않은가. 생전에 멍청한 녀석이었나 보군. 귀신 주제에, 네 녀석이 이 성 안의 마을을 떠들썩하게 한다지. 네놈 원한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만 사라줘 졌으면 하는데."

"그래, 귀신은 원한이 있어야 될 수 있는 법이지. 하지만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해. 그리고 말이야, 난 성 안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없는

데. 스님이 겁을 주더니 내가 행하지 않은 짓도 내가 행한 것처럼 되어 버리는가. 그러고 보니 너도 별로 잘난 것은 없군."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요괴, 사라져라!"

그리고는 나를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자세, 그리고 상대가 귀신이든 무사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여검사의 선제공격을 가볍게 막아 치면서 나는 물어보았다.

"누구의 제자인가?"

"문답무용."

그러면서 계속 공격이 들어왔다.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자세, 어디서 많이 본 것만 같은 얼굴. 냉정한 목소리. 검이 바람을 가르며 내려치자 나는 막기 보다는 얼결에 피했다. 그러자 그녀는 찌르기를 했고, 나는 또 피했다.

"크아아아! 네놈, 없애버리겠다!"

"분노는 스스로의 체력을 소진시키지. 별로 득이 될 건 없어."

"닥쳐라! 네 놈이 생전에 왜 죽었는지 알겠군."

"난 결투 때 평정심을 잃어서 진 것이 아니다."

"웃기는 변명하지 마라."

"나는 비겁한 술수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또한 무사의 실력. 넌 실력이 부족한 것 뿐이다."

"무사도를 어긴 자와 맞서 싸우다 졌다."

"그래서 스스로가 약하지 않기라도 하단 것이냐?"

"난 그저 정당하게 싸우고 싶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을 뿐."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다. 세상에는 불량한 사람들도 많고, 무사도에는 추호도 관심 없는 무사들 또한 있다. 스스로 검술을 익힌 자라면 그런 자가 더더욱 많겠지. 더구나 지금은 난세. 그런데 너는 자꾸 남들은 지키지 않을 무사도를 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네 잘못이다. 자, 원한은 잊고 이제 그만 사라져."

"꼭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사라지는 건 아닌 듯하다."

그러자 그녀가 왼손으로 나를 움켜잡더니 그쪽으로 끌어와서는 무릎으로 공격하였다. 생전의 사람의 육신이었다면 분명히 굉장한 타격이었을 터. 그러나 나는 감각이 없다. 아프지가 않다. 다만 내 앞의 이 방해자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느낄 뿐. 나도 그녀의 손을 잡고 꺾었다.

"귀신이라고 촉감을 못 느끼는 건 아니겠지……!"
"문답무용."
그녀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녀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한 뒤,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등에다 단검을 꽂아버렸다.
"네 녀석에게 지다니, 분하군. 차라리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소원이라면."
손에 든 장검으로 망설이지 않고 죽여 버렸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죽음보다 고통이 더 두려울 터. 저 여자는 내 복수의 대상이 아닌데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불쑥 흰 천 나타났다가 방을 나갔다. 나는 그걸 보고 뒤따라갔다.

비극의 전주곡

'역시나 귀신인가……. 나도 귀신이지만 저쪽이 더 귀신답군.'
흰 천은 아무래도 귀신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쪽이 따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도망가고 있었다. 아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유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도 귀신이니 따로 함정이 마련되진 않았을 것이다. 귀신이 귀신에게 원한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귀신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저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으니 따라갈 뿐.
흰 천 귀신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니 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나는 성 안에 볼 일이 남아있지만, 이 귀신을 따라가면 뭔가 나올 것만 같았다. 지금 그 귀신은 나를 유인하고 있다. 확실하다. 성 밖의 대나무 숲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더 가다 보니 나무가 없는 넓은 눈밭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곳은 어디서 많이 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흰 천 귀신은 눈밭의 한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을 듯한 귀신이다. 그래서 나는 다가가서 흰 천을 벗기려 했다. 별다른 저항이 없어서 벗겨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 어떻게 된 거지?"
흰 천은 그저 흰 천일뿐이었다. 스스로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정작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누가 술법을 불어넣어 조종했다거나

아니면 흰 천 안에 자신의 모습을 사라지게끔 하였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인간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자는 오로지 요괴나 귀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그렇다 해도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이상, 여기 뭔가 있기 때문에 나를 데려온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나는 흰 천이 있던 자리에 검이 꽂혀 있던 것을 봤다. 그 지점을 파헤치다 내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본다. 이것은 나의 시신이다. 분명히 저게 생전의 내 몸이다. 드디어…… 기억이 난다. 시신이 알려주는 기억의 궤적들. 내가 왜 그 무사와 결투하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눈앞에 과거의 기억이 흐르고 있다.

눈앞은 언제나 과거의 기억을 되찾을 때면 그랬듯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아졌다. 그 앞에는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었다. 마을의 아이들인 모양이다. 저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내가 있겠지. 근데 왜 유년 시절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일까. 그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다. 누군가가 목도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저 모습은 내 어린 시절 모습인 모양이다. 그리고 그 옆에 치아키의 어린 시절로 보이는 꼬마가 있었다. 둘 다 목도로 장난을 친다. 그런데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내 원수의 어린 시절에게 형이라 부른다. 부모님이 부르신다고.

내가 복수하려는 무사는 나의 형이다…….

"인정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과거의 기억을 바꿀 수 없었다. 외면할 수도 없다. 그저 눈에 보일 뿐이었다. 과거는 자신이 바꿀 수 없다. 현재만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그건 슬픈 사실이다.

고개를 돌리니 이번엔 청년 시절의 모습이 보인다. 내 형이라는 사람은 나와 같은 스승에게서 무술을 배운다. 행동과 말을 지켜보니, 그 무사는 커가면서 야심을 품게 되었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무술만 배우면 된다는 부모님을 원망한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다. 부모님은 농사나 지으며 은둔하는 사람들이지만 형은 그게 못마땅했다. 부모님도 두 분 다 검과 창을 다루는 분이었지만, 은둔하고 있었다. 난세를 피하기 위해서. 난세에 명예를 얻으려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형은 전란을 피해서 사는 삶이 아닌 스스로 권력을 잡고 어떻게든 세상에 발악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무사는 몰래 밤중에 집을

빠져나간다. 그 장면을 보고도 나는 저것을 말릴 수 없다. 형이 가는 데로 따라 가보니, 형이 거짓된 내용을 밀고하는 장면을 보고야 만다. 반란이 일어날 테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다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이냐구……."

형은 부하들을 이끄는 장수가 되어 부모님이 사는 작은 마을을 모조리 부쉈다. 불을 지르고 쑥대밭을 만든다. 그곳이 이 눈밭이다. 형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마을을 바라다보았다. 부모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오해로 타지의 군사들을 불러 모아 부모와 내가 사는 마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나는 과거의 형의 뒤를 쫓으며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을 지켜보았다. 형은 닌자를 매수하여 스승님을 암살해 버렸다. 스승은 부모님의 부탁 때문에 많이 안 가르치는 것인데, 형은 그가 실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더는 형의 뒤를 밟을 수가 없었다. 고개를 돌리니 나의 모습이 보인다. 장소도 달라져 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갔다. 그게 닌자마을 근처였다. 닌자마을에서 본 어느 여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생전의 자신은 그녀가 닌자의 후예인 줄도 모르고 좋아했다. 그리고 그녀를 스즈키라 불렀다. 그런데 그녀의 언니도 보았다. 그녀는 분명히…….

'말도 안 돼, 내가 스즈키의 언니를 죽여 버렸단 말인가!!'

나는 바보다. 나는 스즈키의 언니를 죽여 버렸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을 적의 모습을 보니 왜 스즈키의 언니를 보고 검과 꽃이란 단어가 떠올랐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스즈키는 눈과 꽃을 좋아했고, 스즈키의 언니는 언제나 동생 곁에 검을 차고 시립해 있었다. 가끔은 나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나는 스즈키에게 고백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스즈키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을 것이라 믿는다. 난세라서 내가 사는 마을은 다시 전투에 휘말리게 될 처지였다. 그 때 나는 어느 주군을 알게 된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못 봤다. 주군의 밑에는 두 명의 하급무사가 있었다. 키가 크지만 무뚝뚝하고 무정해 보이는 슌페이, 키는 작지만 온화한 사이토. 나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주군을 모셨고, 주군은 전투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 주군은 나와 슌페이에게 수백의 군사를 숲에다가 매복시켰다. 하지만 나는 적들과 마주칠 수 없었다. 주군이 적의 계략에 속았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엔 주군이 있는 쪽으로 가야되는 것인가.'

주군이 있는 곳으로 가봤다. 주군은 이미 군사들을 잃고 적들에게 원으로 둘러싸여 그 한 가운데에서 내 형과 일대일로 대결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게 정당한 승부가 아님을 알아챘다. 가면을 쓴 닌자가 뒤에서 독침을 쏘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군은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하였다. 형은 병사들을 시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라 했다. 병사들을 뒤쫓아 가보니 이미 내 부모님은 자결한 상태였다. 병사들은 약탈과 방화를 서슴지 않고 하였다. 닌자 마을로 갔던 병사들은 십중팔구로 죽어버렸다.

'그래서 닌자마을이 공격당하는 것인가.'

하지만 살아남은 병사들이 상황도 모르고 눈을 바라보는 스즈키를 겁탈하고 죽여 버렸다.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나는 위를 쳐다봤다. 나무 위에 스즈키의 언니가 독침으로 병사들을 쏘아서 죽인 것이었다. 스즈키의 언니는 땅에 착지했다. 눈이 덮인 곳이라지만 조용한 착지였다. 스즈키의 언니는 울지 않았다. 대신에 검은 닌자 복을 하고서는 형이 있는 곳으로 몰래 갔다. 스즈키의 언니를 따라가니 형은 어느 귀신과 닌자와 싸우고 있었다. 아니, 귀신은 내가 모시던 주군의 영혼이고, 닌자는 촌장님과 그의 동료였다. 그의 동료는 장검을 쓰고 있었다. 그의 동료는 죽었다. 형은 자신이 매수한 가면을 쓴 닌자로 촌장님의 동료를 공격했다. 촌장님의 동료는 죽어가면서도 검에다가 주문을 외웠다. 귀신이 닌자를 처치하려 하자 형이 귀신에게 활을 손으로 날렸다. 그러나 화살은 귀신을 통과해서 눈에 꽂혔다. 그러자 형은 조금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귀신을 장검으로 없애버렸다. 가면을 쓴 닌자는 직도로 촌장님의 동료를 죽였다. 촌장님은 방어를 하다가 동료의 유품인 장검과 내 주군의 유품인 독약을 품에 넣고서 도주하였다. 그 때 내 근처에 스즈키의 언니가 중얼거렸다.

"저 자가 내 동생의 원수란 말인가……. 개자식, 죽여 버리겠어."

'그래서 스즈키의 언니가 형을 모시면서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내가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정작 스즈키의 언니의 복수를 가로막아 버리다니…….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것이란 말인가!'

그 때 생전의 내가 촌장을 뒤쫓아 가는 형에게 외쳤다.

"주군의 원수, 나와 붙자."

"병사들은 더 어쩌고 혼자 왔지?"

"네 병사들을 없애러 갔다."

"하하, 다츠지, 네 목숨을 끊을 날이 왔구나. 기분이 어떠냐?"
"문답무용."
이후의 내가 처할 상황은 알기 때문에 촌장의 행동을 관찰했다. 역시나 촌장은 그 사이를 틈타 무사히 도망갔고, 가면을 쓴 닌자는 내 뒤로 슬그머니 왔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눈앞의 원수만을 바라보고 대결을 신청해 버린 것이었다.
'스즈키의 언니가 옳았다. 나는 멍청했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스즈키와 언니의 복수를 해 주어야만 하는군. 촌장님은 예전부터 촌장님이었거나 촌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야.'
거기까지가 내 시체가 남긴 기억의 궤적이다. 내가 복수하려는 사람이 나의 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래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나뿐만이 아니라 스즈키와, 그의 언니와, 내 스승과, 내 부모님과, 촌장님과 주군의 원수이다.

복수의 시작

나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야마다와 우치다를 새벽에 불러냈다. 그 여검사와의 결투가 길어졌더라면 그럴 수 없었겠지만, 덕분에 흰 천 귀신과 만나고 기억을 되찾게 되었다.
야마다와 우치다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다. 더군다나 내가 느닷없이 불러내도 별다른 말없이 와 주었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둘에게 이 마을을 어떻게 교란시켰는지 물어보았다.
"야마다, 무슨 공작을 했어?"
"사람들의 발목을 묶었지. 자세한 것은 내가 말을 해준다고 해도 닌자 출신이 아닌 네가 알 수 있을 리는 없겠지. 훗,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을 해치진 않았다. 그건 임무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기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우치다, 너는?"
"스님으로 변장하여 이 마을의 성주를 불러서 치아키를 죽이지 않으면 원한 맺힌 귀신이 이 성 안의 주민들을 차례로 죽일 것이라 경고했다."
"좋았어. 내일 해 질 무렵에 내 원수를 성 밖으로 유인할 거다. 남서

쪽 눈밭에서 복수를 할 것이다. 노을이 질 때쯤에 대나무 숲에서 매복을 해줘. 닌자니까 적의 배후를 노리는 것은 잘 할 거라고 믿어."

나는 그들과 내일 밤에 보기로 약속하고 닌자마을로 돌아왔다. 닌자들이 감정에 잘 휩쓸리지 않는다고 알았지만, 그건 역시 마을마다 다른 모양이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 동료의 죽음을 잊지 못하는 촌장님이 있는 곳이며, 동생의 비극을 지켜본 스즈키의 언니가 살았던 마을이며, 촌장의 지시라면 돈을 받지 않아도 임무라 여기는 야마다와 우치다가 사는 마을이다. 나는 촌장의 집에 머물며 쉬고 있는 슌페이와 사이토를 봤다. 둘을 불러내어 작전에 대한 내용을 말했다.

"치아키는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니까 야마다와 우치다라는 닌자와 너희와 내가 협공할 것이다. 치아키도 닌자를 고용할지도 모르지만, 야마다와 우치다는 우리 편이라는 거 잊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어이, 다츠지. 원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내 시체를 보고서 기억을 되찾았지. 사이토, 너 어째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 어쨌거나 내일 저녁 성 밖의 남서쪽 눈밭에서 복수를 할 것이다. 치아키를 한 가운데에 놓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붙을 거다."

나는 얼른 원수를 갚고 싶었기 때문에 작전도 사실은 대충 구상한 것이었다. 게다가 성 안의 교란은 두 닌자가 알아서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후, 해가 질 때쯤에 초승달이 떠올랐다. 해가 서서히 지고 달은 떠오르고 있었다. 두 닌자가 먼저 눈밭에 도착했다. 나는 둘에게 지시를 내렸다. 야마다는 동쪽에, 우치다는 서쪽에 숨었다. 무기 점검 같은 것은 하지도 않았다. 두 녀석이라면 스스로의 목숨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는 촌장의 동료와 같은 꼴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그 둘을 일일이 챙길 필요 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슌페이와 사이토도 도착했다. 슌페이는 남쪽, 사이토는 북쪽에 숨었다. 대나무 숲이지만 사람이 의외로 몸을 숨기기에 적합했다. 더군다나 눈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땅이 차가워서 이동하기가 힘들다. 눈은 밟으면 서리가 된다 하였던가. 하지만 나는 눈의 차가움을 느끼지 못한다. 누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맞게 되더라도 그게 아픈 건줄 모른

다. 그러나 나에게는 감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한을 갚으려 하는 것이다.

나는 재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치아키가 거처하는 곳에 갔다. 이번에도 문은 귀신답지 않게 열었다. 귀신이라면 벽을 통과해서 가야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나는 그런 재주가 없다. 더구나 나는 날지도 못한다. 치아키가 있는 곳에 문을 확 열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촛불을 검으로 쳐서 박살내버렸다.

"웬 귀신이냐.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단 말인가."

"……."

나는 방을 나섰다. 치아키는 장검을 무릎 앞에 놓고 명상 중이었다가 나를 봤으므로 내가 선제공격하면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촛불을 건드린 게 화근이었다. 치아키를 모시는 병사들이 우르르 마당에 쏟아져 나왔지만 나를 보지 못하였다. 오직 치아키만이 장검을 차고 나를 뒤쫓아왔다. 치아키가 부하들에게 귀신을 잡아라고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나를 보지 못해서 검으로 열심히 허공만 베고 있었다.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게다가 우치다가 스님으로 변장해서 치아키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니 병사들은 치아키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유유히 치아키의 거처를 빠져나왔다. 치아키는 병사들이 휘두르는 검과 창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멈춰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말을 타려고 했지만, 말은 병이 든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달려서 나의 뒤를 쫓았다.

'내 원수라고는 하지만 정말 대책 없이 쫓아오는군. 그건 나에겐 잘된 일이긴 하지.'

나는 뒤돌아보면서 성을 빠져나왔다. 내 원수는 나를 뒤따라 쫓아왔지만 그를 뒤따르는 약간의 군사들은 흰 천 귀신을 보고는 거기에 겁을 먹고 더는 쫓아오지 못했다.

'저 흰 천 귀신은 분명히 저번에 내가 만났던 그 귀신인데. 어째서 또 이렇게 보는 것일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를 눈밭에까지 유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유인은 의외로 쉬워 보였다.

원하지 않은 순간

나는 최후 결전의 장소로 그를 유인한다. 그는 활을 계속 쏘았지만 나

는 칼과 창이 아니면 타격을 입지 않는 영혼이다. 그는 결국 건강한 말을 타고 도망치는 듯이 보이는 나를 쫓기 시작했다. 잘 됐다. 눈이 서서히 흩날리기 시작하는 벌판으로 그를 계속 유인하였다. 아무도 그를 따라서 오지 않았다. 아니, 그것보다는 그가 혼자만 가겠노라 지시한 걸지도 모른다. 방해만 되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흰 천 귀신의 덕도 크다. 아니, 이 모든 추측이 다 사실이 아니라 해도 역시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적수는 혼자고 이쪽은 나를 포함해서 다섯이다. 두 명의 출중한 닌자들은 암살의 대가이며 흔들림 없는 인간이다.

목적지에 가면 갈수록 나는 복수를 갚을 생각에 들떠있었다. 게다가 자꾸만 내 주위의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른거려서 복수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다. 분노가 생겨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를 유인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서서히 흩날리던 눈이 어느새 함박눈이 되고 바람까지 휘몰아 쳤다. 일전에 병사들이 두려워하던 귀신의 분노였다. 나는 뒤돌아섰다. 그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닌자들이 근처 나무 위에서 독침으로 말을 쏘았다. 사실 그를 죽이려 한 독침이었으나 그가 탄 말이 맞아버려서, 그는 낙마하였다. 그러나 눈이 잔뜩 쌓인 데에 떨어졌기에 별다른 부상은 입지 못한 모양일뿐더러, 멀쩡한 말이 죽어버렸으니, 상대가 귀신 혼자가 아님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확실히 그는 주위를 심하게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정면 돌파 밖에 없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두 명의 닌자들이 그를 주위로 에워쌌다. 그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말이다. 닌자들의 직도를 꺼낸다. 드디어 검으로 승부를 가른다. 하지만 닌자들의 검은 잘 제련되지 못한 검. 나는 일전에 야마다의 검을 봤지만 그것은 나무조차 베지 못하는 무딘 칼이다. 하지만 상대가 혼자라 하더라도 일단 상대는 굉장히 예리한 검을 소유하고 있다. 이건 상대가 어느 정도의 검술 실력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뉜다.

먼저 공격한 쪽은 무사였다. 아무래도 두 닌자가 쓰는 칼이 별로임을 그 때의 싸움으로 어느 정도는 아는 모양이었다.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그는 야마다의 눈에 눈이 들어가서 눈을 깜빡거리는 걸 관찰한 모양이었다.

챙-!

단 한 번의 부딪침으로 칼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어이없는 일은 없다. 하지만 칼을 부딪치고 난 뒤에도 계속 칼을 맞댄 상태에서 나의 원

수는 야마다를 발로 걸고 넘어뜨렸다. 넘어진 뒤에 무사는 허리에 찬 단도를 꺼내서 닌자의 숨통을 끊었다. 하지만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내 동료가 아니었다. 대개 이런 경우에 닌자들은 동료들의 죽음을 잘 슬퍼하지 않는다. 감정보다 임무가 먼저다 그렇기에 그들은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이다. 실수도 실력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이십 년 이상의 세월을 오직 암살과 심리전과 도주 기술 연마에 힘 쏟은 자들이다. 무사들이 제아무리 닌자들을 죽이려 해도, 닌자들은 잘 피하는 편이다. 다만 이번 무사는 닌자들의 습성을 잘 아는 녀석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닌자들을 고용한 적도 있고, 그 닌자와 함께 닌자와 귀신과 대치한 적도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도 거들어야 한다.

몇 차례 쇠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치다는 사실 검술에 뛰어난 편은 아니다. 다만 이번엔 그들의 암살 무기를 던졌는데 그걸 무사가 다 튕겨낸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사는 암살 무기를 튕겨내면서 전진하였다. 무사는 장검을 휘두르기에 한 발만 다가서도 공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는 두 걸음이나 전진하였다. 그것은 곧 내 동료들이 두 걸음 정도는 후퇴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후퇴하지 못했다. 눈이 워낙에 쌓이는 중인데다 바람도 휘몰아 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우치다는 뒤로 넘어졌다. 넘어진 닌자는 틈을 놓치지 않고 독침을 쏘았지만 갑옷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 다시 또 독침을 쏘았지만 자꾸 치아키의 목이 아닌 갑옷에 꽂혔다.

"갑옷을 입고 있군. 제길."

우치다는 임무에 실패하자 가차 없이 자결하였다. 무사와 일대일로 싸울만한 검술이 아니라는 것, 즉 검술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목을 단검으로 베었다. 나를 쳐다보면서 말이다. 내가 상대하는 이 자는 진정 홀로 싸우는 무사가 맞단 말인가.

숲이 험했으면 계속 숨었을 수 있었지만 눈밭이라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눈도 휘날려서 원거리 공격 무기는 사용하는 데 힘이 들었다.

나는 또 다시 비극을 보고 만다. 촌장님은 목숨이라도 구하고 유품을 챙기기라도 했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싸우고 싶었지만 눈앞에 벌어진 둘의 죽음이 너무도 순식간이라 뭔가를 할래야 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슌페이는 눈앞의 상황에 어이가 없었는지 숨지 않고 창을 들고 치아키의 뒤를 공격했다. 하지만 그것도 치아키가 틈을 보여준 것이었다. 치아키는 누군가 있을 것이란 걸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슌페이는 닌자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눈이 더욱 거세지자 치아키는 얼른 싸움을 끝내기 위해 힘껏 검을 내리쳤다. 슌페이가 창으로 막았지만 창은 두 동강이 났다. 슌페이도 장검을 꺼냈다. 하지만 찡그린 인상에서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나도 합세해야만 한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분노에 잠식된 몸이 날씨를 더욱더 미치게 만드니 스스로의 몸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나는 침착함을 잃었다. 스즈키의 언니 말대로 나는 어쩌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 그것도 무사의 덕목이었음을 나는 왜, 왜 몰랐던가!!

슌페이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럴 때 사이토가 분명 후방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만, 사이토는 나타나지 않는다. 절망적이다. 슌페이는 사이토 따윈 잊고 눈앞의 적만을 보고 있다. 싸움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자세, 저것이 진정한 무사다……!

둘은 바람이 휘몰아치고 눈이 쏟아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서로를 계속 노려보았다. 이윽고 둘은 서로의 진검이 진가를 발휘할 일격을 서로에게 가했다. 그러나 검이 엇갈리면서 서로는 서로에게 상처조차 주지 못했다. 눈이 계속 휘날리자 둘은 눈을 감았다. 치아키가 땅을 더듬어 돌멩이를 던졌다. 슌페이는 아마 닌자를 데려올 것이라는 내 경고를 명심한 까닭인지 돌멩이를 독침으로 상상하고 지나치게 세게 휘둘렀다.

돌멩이가 반으로 나뉜다. 그리고 치아키의 공격이 들어온다. 그걸, 무사는 최강의 일격으로 받아친다. 이 싸움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나도 모른다. 날씨는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지리한 싸움으로 둘은 서서히 지쳐갔다. 하지만 살아있는 주군을 모시는 자와, 죽은 주군의 복수를 하려는 자는 서로의 실력을 다 알게 되었다.

"네 대머리 주군을 위해서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네놈이야 말로."

"닌자가 죽은 실점을 되찾도록 하지."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걸."

둘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위치를 파악했다. 슌페이는 낮은 자세로 돌진했고, 치아키는 휙 뛰어올랐다. 슌페이는 다리 쪽을 공격했으

나 허공을 벨뿐이었다. 치아키는 순간의 오판을 한 슌페이의 팔을 잘라버렸다. 땅에 착지하고 나서 반바퀴 돌아 슌페이의 다리를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슌페이의 심장에 검을 꽂았다.

진정한 무사 슌페이는 그렇게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다. 심장에서 쏟아지는 피가 눈밭을 붉게 물들였다. 어느덧 새벽이다.

그 피의 마지막 한 방울에게

날씨를 생각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었다. 그것보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눈앞의 복수할 대상만을 보고 생각한 내가 잘못이었다. 감정을 앞세웠다. 그것이 일을 그르치게 만들었다. 촌장의 기대를 저버렸다. 하지만 이젠 내가 나설 차례다. 장검을 꺼내든다. 그리고 그를 쳐다본다. 그도 나를 쳐다본다.

"귀신 주제에 장검을 쓰다니. 전생에 무사였나 보군."

"비꼬지 마라. 나는 네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을 검술로 수련하였다."

"네가 마치 류다이의 제자라도 되는 줄 아는가 보군."

"류다이의 제자, 다츠지다."

"다츠지……!"

눈이 멎었다. 나와 형은 진검으로 승부하였다. 아니, 형으로 보지 않겠다. 이 녀석의 몸짓은 예전 그대로다. 똑같은 검법으로 나를 대하였다. 나도 내가 쓰던 검술을 썼다. 스승님이 유년 시절 가르쳐준 검법과, 청년시절 스즈키의 언니가 알려준 검법. 하지만 저쪽은 공격, 이쪽은 방어의 구도가 되니, 불리한 건 내 쪽이었다. 결국 나는 최후의 수를 쓰기로 하였다. 틈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걸 눈치 챈 검사는, 최후의 일격으로 나를 찌른다.

나는 그대로 몸에 검을 찌르게 놔두었다. 내 검은 천을 그의 검이 관통했다. 나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프다는 걸 모른다. 고통 따위는 모른다. 단지 눈앞에 있던 검사가 나의 수에 넘어간 걸 알아차릴 뿐이다. 나는 녀석이 검을 빼기 전에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 녀석이 검을 못 뽑게 손목을 잡고 그를 얼른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그의 손목을 놓고 왼손으로 단검을 빼내서는 그 녀석의 등에 꽂았다.

그 때, 흰 천 귀신이 나타났다. 그리고 바람에 천은 날아가 버리고 내

눈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가면에 입술을 맞추고는 눈물을 흘리며 웃어주었다.

'스즈키…….'

사라졌다. 하지만 이놈은 전혀 몰랐다.

"이 녀석, 자신의 목숨을 내주면서 나를 죽이려 한 수였군!"

"나는 이미 죽은 몸. 귀신이 더 죽을 수 있는가? 오로지 주군과 부모와 여인과 나의 원수를 갚을 뿐."

"그래도 너는 지금 발끝부터 사라지고 있지."

녀석 말대로다. 나를 감추던 검은 천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 몸이 드러날 리가 없다. 나는 육신이 없다. 허공에 검은 천을 씌우고 거기에 흰 가면을 붙인 귀신일 뿐이다. 나는 녀석을 더는 끌어안을 수 없었다. 그 녀석은 내 몸에 박은 검을 뺐다.

"벌써 이마에 땀이 맺힌 모양이군. 너는 단검을 빼도 죽고, 안 빼도 죽는다."

"뭐……?"

"거기엔 닌자가 준 맹독이 묻어 있었거든. 너는 등에 검이 꽂혔기 때문에 독이 심장에 빨리 퍼질 것이다."

그 녀석은 뒤로 물러섰다.

"네 녀석, 없애 버릴 테다!!"

"미안하지만 분노는 피의 순환을 도와서 더 빨리 죽는다구."

"너, 너……!"

그리고는 손을 더듬어 단검을 빼내고는 피를 눈 위에 토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 때 검은 천이 완전히 사라지고 흰 가면이 땅에 떨어졌다. 보이는 것은 하늘뿐. 아마, 그, 치아키, 내 원수는, 비정한 형은 눈 위에 피를 토했으니 죽어버렸겠지.

또 다른 비극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구름이 완전히 다 걷히진 않았지만, 빛은 눈 위를 환하게 해주었다. 조용히 풍경을 감상하는 그런 나에게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다가와선 나를 들어올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땅에 떨군 내 가면을 집어 들었다. 얼굴을 보니 그 녀석이었다.

"너는 내 친구지?"
"아니."
"……?"
"닌자들의 위치와 슌페이의 위치를 알려준 것은 나다."
"이런 배신자!"
"하하, 그거야 네가 사정을 모르니 그렇지. 난 무사가 아니다. 난 닌자다. 다만 임무가 네 녀석을 처치하는 것이라 너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친구가 된 것이지. 처음엔 네가 모시는 군주를 없애는 것이었지만 말야. 어쨌든 네 친구 녀석이 너무 센 녀석이라 나 혼자 손을 쓸 수 없었지. 난 완전한 닌자는 아니라 말이야. 네가 죽인 놈은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이지."
충격적이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인 녀석이 배신자일 줄은……. 거기다가 그렇게 융통성 없고 강직하고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우직함이 성격인 그 친구가 내 은인일 줄은……! 슬프지만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다. 시간을 어떻게든지 끌어야 한다.
"네가 닌자였다니……."
"네가 죽인 게 네 형이었더냐. 흣. 부모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레 형제가 서로를 파멸하게 만든거지."
"비웃지 마라. 이건 하늘의 장난일 뿐."
"그래도 나는 귀신과 맞붙어본 적이 있지. 귀신들은 언제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 원수를 갚는 것은 백 중에 하나 될까 말까지. 넌 구십아홉의 다른 귀신들과 다를 바 없어. 넌 조금도 특별하지 않아. 넌 평범한 귀신이다."
"마음대로 지껄여라. 너 같은 닌자도 언제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내가 알던 닌자마을의 촌장님은 감정이 있었어. 그에게 돈보다 더 우선이 있었지. 그게 뭔지 알아? 사람이야. 사람 목숨이라구. 그는 자신의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내 주군을 도왔고, 어쩔 수 없이 동료가 희생되었지."
"과연 그럴까. 네 촌장은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째서 네가 좋아하던 스즈키를 구할 수 없었을까. 자기 딸인데도 말이야."
"촌장이 직접 구하러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무 위에 스즈키의 언니가 독침으로 병사들을 모조리 없애 버렸기 때문이지."

"너는 그 때에 바보같이 주군의 명령을 수행한답시고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 매복 중이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지……?"
"내 시체가 알려줬다. 불만이냐."
"촌장이 알려줬나 보군. 그는 내 스승이었지만 나에게 임무를 완수하고 난 뒤에 돈을 주지 않았어. 참으로 사람을 위하는 인물인가."
"그는 마을 전체의 존속을 원했지. 너처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누가 죽든 말든 슬퍼하지 않는 냉혈한은 촌장님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호라, 그래?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나다."
"과연 그럴까. 너는 아직도 돈에 얽매이고, 돈에 움직이고,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하찮은 인간일 뿐이야. 너는 결코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가 없지."
"그건 너 또한 마찬가지. 하급무사 주제에 무엇이 잘나서 큰 소리더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미래가 있었지. 넌 평생을 어둠과 함께 하다가 죽을 운명이야."
"흣, 사라지기 전의 발작이로군."
"내 생각에는 윤회하고 나서도 너는 나한테 상냥하게 접근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또 비수를 꽂겠지."
"내 생각도 그래."
"그래……? 그렇다면 너에게 알려줄 일이 있다."
"……?"
"내 가면에는 촌장님이 발라준 독이 있다. 만지면 사망하는 독이지. 누가 내 가면을 벗기면 내 얼굴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발라준 독이지. 사람만 죽는 독이다. 난 귀신이라서 내 얼굴에 독이 발라져도 난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지. 하지만 넌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라 네 손바닥을 보면 보라색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나와 너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서 독이 심장에 퍼졌을 것이다."
그러자 그 녀석은 가면을 떨어뜨렸다.
"넌 피를 토하게 될 것이야."
그 말을 하자마자 눈 위에 피를 토하였다.
"그리고 죽게 되지……."
"웃기지 마!"

"넌 내 가면을 만진 순간 의사를 만나러 갔어야 했다. 하지만 네가 나를 조롱하려고 하니, 너는 천벌을 받은 게지."
"네까짓 놈, 없애 버릴 테다!"
그리고는 가면을 장검으로 베어버렸다. 아까까지 보이던 하늘이 어둠으로 변했다.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귀신조차 아니게 되는 건가.

눈-이야기의 끝

아니다. 여전히 나는 귀신인가? 귀신일 적의 나는 촉감이라곤 없었다. 따뜻함도 차가움도 직접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뭔가……따스하다. 눈을 떠보니, 나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본 지상은 아름다운 흰 세상이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빛이 비추었다. 빛은 흰 땅을 비추었다. 흰 땅은 빛을 받고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흰 눈 위에는 혈흔이 곳곳에 있다. 불과 며칠 사이의 우정이지만 촌장의 말은 뭐든지 수행하려 했던 나와 절친한 닌자 야마다, 우치다의 시신과, 내 주군과 부모와 내 사랑하는 이의 원수인 내 형의 시신이 있다. 나는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나를 뒤에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닌자에게서 알게 모르게 보호해준 의리 있는 진정한 무사 슌페이의 시신도 보였다. 그리고 내가 바보같이 친구라 믿었던 닌자 사이토의 시신이 있다.
세상은 흰 눈으로 덮여 있고, 그 눈 위에 피가 꽃처럼 피어있다. 내 옆에 스즈키가 환하게 웃고 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다.
세상은 아름답기만 한 것일까? 슬픔으로 덮인 세상, 원수를 갚고, 배신자를 응징하고도 남는 허전함…….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늘에서 흘린 나의 눈물은 차가운 기류에 얼어붙어 눈이 되어 흩날렸다. 〈끝〉

2007.10.8.
글 - 누굴까